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99>

JCCT 2023-9-12

아프로퓨처리즘 : 문화, 기술 그리고 연대의 상상력

Afrofuturism : Culture, Technology and Imagination of Solidarity

한창희*

Changhee Han*

요약 본 연구는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한 1)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정의를 정리하여 보고, 2) 탐색적 사례연구를 통해, 3) 미래 기술 발전의 지향점과 관련해서 갖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프로퓨처리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적 논의를 살펴보고, SF문학·음악·미술 분야의 작품을 분석했다. 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의 SF문학은 노예제도의 과거를 들추어 세상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타자화된 억압으로부터 흑인 자신들을 해방해야 한다는 사상을 확인케 한다. 자넬모네(Janelle Monae)의 음악은 기술을 통해 소수자가 외부와 관계맺을 수 있는 해방된 유토피아를 제시한다. 또한,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미술 작품은 흑인 예술인으로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흑인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확장된 공동체적 논의를 모색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작업에 비추어, 본 논문은 아프리카 휴머니즘의 내재된 가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 속 타자와 타자의 관계 맺음으로 생성되는 공진화(共進化)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주요어 : 아프로퓨처리즘, 마크테리, 옥타비아버틀러, 자넬모네, 장 미셸 바스키아, 포스트휴머니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1) summarize the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afrofuturism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2) through exploratory empirical research, and 3) recover the concept of reversal in relation to the turning point of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this end,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ceptual discussion of Afrofuturism were examined, and works in the field of SF literature, music, and art were analyzed. Octavia Butler's science fiction confirms the idea that black people must liberate themselves from othered oppression by bringing the past of slavery to the forefront of the world. Janelle Monae's music presents a liberated utopia where technology allows minorities to connect with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Jean-Michel Basquiat's artwork reimagines a black identity that has been excluded and seeks to expand communal discussions. In light of their work,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values inherent in African humanism can provide clues to the co-evolution that is generated by relating to the Other in the face of exponentially advancing technology.

Key words : Afrofuturism, Mark Dery, Octavia Butler, Janelle Monae, Jean-Michel Basquiat, Post-Humanism

*정회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31일

Received: July 25, 2023 / Revised: August 20, 2023

Accepted: August 31, 2023

*Corresponding Author: philoart.h@gmail.com

Dept. of Art Theory, Hongik Univ, Korea

I. 서론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전 인류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했다. 물론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에서 기술이 진보하였던 사례는 이전에도 찾을 수 있지만, 21세기를 이끄는 핵심 기술들의 최전선에는 이전과는 다른 대규모 자본이 집중적으로 결탁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헤게모니가 권력과도 맞물려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 착취, 차별을 정교화하는 권력 남용의 그림자가 드리울지언정, 기술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메커니즘은 유지 및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지 모르지만, 실제 인간에 의해서 활용되는 기술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그렇기에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빨리’ 도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이 중층적으로 연계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그 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지, 기술의 접근에 배제되는 집단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소수자 집단의 미래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afro)와 미래주의(futurism)의 합성어로, 판타지, 과학, 우주론 등을 통해 흑인 위주의 문화적 미학을 형성하는 흐름인 ‘아프로퓨처리즘’을 바탕으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서구 학계에서는 아프로퓨처리즘 담론을 논의하는 서적과 논문이 다수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미국의 대표적인 국공립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스미스소니언재단에서 2024년까지 상설 전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시각 미술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아프로퓨처리즘에 관한 관심이 적은데 이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적 교류와 정보가 부족한 점에 기인할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국내에서는 김명성, 김현주, 김세리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으나 아프로퓨처리즘과 기술 윤리적 자세를 융합해 연구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 미학적 의의를 밝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프로퓨처리즘의 정의를 구체화 해줄 수 있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 의의를 확인한다. ‘아프로퓨

처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대에 따른 의미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되었는지에 대해 문학, 음악, 미술 3개 분야에서의 아프로퓨처리즘 활용 사례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나침반으로서 아프로퓨처리즘의 의의를 고찰한다. 억압에 저항하고 유토피아에 대한 강력한 지향을 이야기하는 아프로퓨처리즘을 탐구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공생하는 지구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해안을 제공할 것이다.

II. 본론

1. 흑인이여, 미래로!

아프로퓨처리즘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 1990년대에 와서야 철학, 미학, 역사 등 과학적, 사회적 영역을 넘나드는 담론으로 재개되었다. 이후 공식적 명칭을 부여받게 된 건 문화 비평가 마크테리(Mark Dery)가 1994년에 발표한 『흑인이여, 미래로(Black to the Future)』라는 에세이 작품에서다[1]. 아프로퓨처리즘에 관한 테리의 말을 덧붙이자면, “20세기 기술 문화의 맥락에서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관한 SF소설[2]”에 대한 통칭이다. 그는 아프로퓨처리즘을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흑인 공동체의 역사가 서구 유럽인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음에 주목한다. 테리의 문제의식은 “흑인 공동체가 과연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2][3]에 관한 질문으로 나아간다. 그는 백인 문화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된 채 흘러온 흑인의 역사에서 현재를 오롯이 마주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테리는 노예무역으로 인한 아프리카 흑인의 강제 이주의 과거를 ‘SF소설과 같은 악몽’[4]으로 표현한다. 외계인과의 접촉, 납치 서사가 SF에서 반복되는 주제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이는 그가 주장하는 “흑인들은 외계인 납치 피해자의 후손[2]”이라는 은유의 적절성 또한 뒷받침한다. 테리의 해석에 따르면, 그에게 흑인의 상태는 이미 사이보그나 다름없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는 개별적 기억과 집단의 트라우마를 ‘미래’로 시선을 전환함으로써 주체로서의 해

방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유를 개시한다.

아프로퓨처리즘의 범위와 가시성이 커짐에 따라 1998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학자, 예술가, 활동가들이 테리의 정의에 보완적인 정의를 추가했다. 우선 코도 이순(Kodwo Eshun)은 아프로퓨처리즘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시간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았다[5]. 이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시간은 과거-현재-미래의 선형적 구조임을 인지하면 수월하다. 이와 달리 흑인의 디아스포라 경험에서의 시간은 탈선형적으로 대치된다. 이때 이순이 제시한 개념은 흑인의 시간이 미래를 향하여 다시 선형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흑인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시각이다. 그가 강변한 아프로퓨처리즘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프리카가 사회적, 정치적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들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은 아프로퓨처리즘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다루는 흑인의 주체적 입장으로 설명했다. 넬슨이 바라볼 때, 인종 차별과 성차별이 기술의 발전으로 제거될 것이라는 생각은 “디지털 시대의 허구”[6]였다. 지극히 일차원적인 상상이기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어서 이타사 위맥(Ytasha Womack)은 흑인의 상상력을 해방하는 힘을 더 강조하며 ‘상상력, 기술, 미래 및 해방의 교차점’[7]으로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해 정의한다. 그녀는 상상력의 사용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므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주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프로퓨처리즘은 예술적 미학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자기 해방 또는 자기 치유의 방법”[7]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이처럼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한 개별 학자들의 이론적 주장은 개념 해석과 관련한 전제나 조건들을 다르게 제기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2. 아프로퓨처리즘, 사례와 그 의미

상상된 미래의 순간에는 투사된 현재의 욕망이 깃들여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다르다. 인종차별, 노예제도, 식민주의와 같은 그들의 비극적인 서사는 역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로

투사된 과거의 페이지 자체가 누락된 채 흘러온 그들의 역사에서, 미래로 투사할 ‘과거’가 있기는 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들은, ‘과거를 현재로 다시 데려와 마주보기’를 시도한다. 말하자면 기억의 담론이라는 역사에서 소외되어 온 흑인들의 감춰진 과거를 추적함으로써, 착취당한 삶과 경험이 어떻게 흑인의 정체성을 형성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반복적인 질문이자 행위이기도 하다.

아프로퓨처리즘은 영화, 미술, 음악, 만화, 문학,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경험에 대한 질문을 미래에 투영한다. 오늘날 영향력 차원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아프로퓨처리즘 분야는 SF소설, 음악, 미술이다[1]. 이 절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각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각 분야에서 ‘과거’를 소환해 ‘상상 속 미래’를 현실화하고 그리하여 아프로퓨처리즘의 가치를 실현한 방법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문학-옥타비아 버틀러(Octavia Butler)

아프로퓨처리즘을 대표하는 문학 작가인 옥타비아 버틀러는 서구 백인 남성 중심이었던 1970년대 미국 SF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실히 한 작가다. 버틀러에게 SF 창작의 동기는 우주와 별들을 향한 원초적 동경, 그리고 다른 세계와 존재에 대한 상상이었다[8]. 특히 『킨(KINDRED)』(1979)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1970년대를 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흑인 여성 다나(Dana)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타임슬립물이다. 다나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간을 거슬러 가족이 노예가 된 메릴랜드 주의 농장에서 조상의 유산을 마주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다나의 여정을 마주하며 ‘역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힘’임을 깨닫게 된다.

버틀러는 SF라는 문학 형식 안에서 기존 사회의 차별적 구조에 내재한 개인의 한계에 대해 질문한다. 그녀는 노예제도라는 잔혹한 유산, 소위 부정적이고 억울한 과거에 잠식당하지 않는다. 대신에 ‘상상력’으로 감춰진 역사의 거울에 ‘진실’을 비춘다. 혹은 진실의 거울에 감춰진 ‘역사’를 비춘다. 역사의 아픔을 들추어 세상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성찰과 공감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버틀러는 백인과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타자화된 흑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해’

설계된 미래를 보여준다.

2) 음악-자넬모네(Janelle Monae)

자넬모네는 ‘로봇’이라는 수식 어휘를 사용해 인종, 성별, 배제의 쟁점을 그녀의 음악 작업에 드러낸다. 2010년 데뷔 앨범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네가 발표한 앨범들은 공통으로 아프로퓨처리즘을 이야기한다. 그중 2018년 4월에 발매한 <Dirty Computer(더러운 컴퓨터)>은 아프로퓨처리즘적 세계관의 절정을 보여주는 앨범으로, ‘AP 선정 2018년 최고의 앨범’에 오르기도 했다[9]. 이 앨범은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더러운 컴퓨터’로 분류되어 삭제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뮤직비디오의 도입부 장면[10]은 다음과 같은 모네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그들은 우리를 컴퓨터로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청소가 시작되었다. 당신은 다르게 생겼으면 더러운 것이었다.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당신은 더러운 것으로 규정됐다. 그 어떤 형태의 반대 의견을 밝히는 행위 또한, 더러운 것으로 규정됐다.

이는 디스토피아 세계와 조직의 규칙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따분해 보이는 두 명의 기술자가 제어 부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모네의 기억이 하나씩 삭제된다. 상술한 서사는 ‘더러운 컴퓨터’가 겪어야 하는 ‘청소’ 과정에 대한 묘사다. 모네의 뮤직비디오 속 더러운 컴퓨터는 버그, 즉, 제거되어야 할 코딩 오류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 체제의 억압에 고통받는 소수자들을 지칭한다. “지시하는 대로 살기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더러운 컴퓨터로 간주해 컴퓨터의 모든 기억 데이터와 개성은 청소된다는 내러티브는 위 비유를 뒷받침한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작품에 드러난 비인간에 대한 미적 표현이다. 이를테면 모네는 비인간인 ‘컴퓨터’를 단순한 도구적 객체가 아닌 포스트휴먼적 비인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심인 내부와 배제되었던 외부가 관계 맺음으로써 생성되는 전복과 새로운 관계는 포스트휴머니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한 아프로퓨처리즘적

유토피아는 저마다 “더러운 컴퓨터”인 소수자들이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의 세계다[11]. 그녀는 기술이 차별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는 첨단 기술이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 주기 보다는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게 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11]. 예컨대 기술을 통해 소수자의 개성을 침묵시키는 것을 넘어서 ‘청소’까지 해버리는 디스토피아로 응축된다. 그러므로 모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억압이 아닌 ‘해방적’이어야 하는 기술의 사용이다. 이는 “흑인 해방에 대해 생각하고, 해방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틀”[7]이라고 했던 이타샤 위맥의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한 가치관과도 조응한다. 정리하자면 모네는 자신의 앨범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선사하는 아프로퓨처리즘적 행위를 통해 상상에 의한 미래를 형성한다.

3) 미술-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아이티 출신 이민자인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의 흑인 화가 바스키아는 낙서 방식의 작업을 통해 반인종주의 사상을 표출했다. 지저분한 낙서가 휘갈겨져 있는 길거리 벽면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놓은 듯한 그의 작품에는 직관적인 표현에서 비롯되는 즉흥적인 감성과 충동이 나타나 있다.

바스키아가 1983년 작업한 <당밀(Molasses)>에는 역사 속 소외되어 왔던 흑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12]. 작품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의 발아래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로봇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노예를 연상시킨다.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간주되는 노예는 존재가치가 곧 경제 가치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로봇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로봇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문화이자 차별받는 인종의 대표적인 표상을 하고 있다. 작품 속 로봇(노예)은 권위적인 존재의 손에 고통받으며 패배한 표정을 짓고 있다. 또한 작품명인 ‘당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탕 생산의 부산물을 의미하는 당밀은 환유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아프리카 흑인을 상대로 한 노예무역을 가속한 설탕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끔 한 바스키아의 기제로 파악된다. 설탕은 노예노동을 기초로 한 대형 플랜테이션을 건설해 제국주의의 팽창과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착취에 의존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설탕’으로 축적한 신제국주의의 부와 정

복, 우월의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맥락이다.

이처럼 바스키아는 1980년대 백인 전유의 미국 미술 제도권에서 가려져 있던 흑인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위치시켰다. 암묵적으로 설정된 흑인-백인 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예로 삶을 착취당한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그 불이익을 현재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다. 흑인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회의감과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고스란히 그의 작품에 표현되었다. 흑인 예술인으로서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흑인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확장된 공동체적 논의를 모색하고자 한 그의 예술적 태도에서 아프리카주의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스키아는 배제된 존재들 즉, 실존에 대한 가치가 외부로 밀어진 존재들을 다시금 내부로 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을 연역해낸다.

3. 문화와 기술을 통한 유대의 확장

신기술 시대로 표상되는 오늘날에 아프리카리즘은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즉 타자로 규정된 자를 위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또 사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제기되어야만 하는 질문에 대한 문화적 영감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가령 2015년 구글에서 개발한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가진 구글 포토 앱에서는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추천한 사례[13]가 있었다. 흑인에 대한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흑인과 고릴라의 피부색을 구분하지 못한 머신러닝 시스템이 오류를 범했는데, 이후 구글의 해결책은 ‘고릴라’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알고리즘은 ‘원숭이’ 혹은 ‘침팬지’ 등의 단어로 동일한 추천을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됐다[14].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이 단순히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최첨단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기술 자체 혹은 기술이 생산되는 환경에 내재하여 있든, 이러한 기업의 알고리즘에 있는 흑인에 대한 데이터는 암묵적인 듯 보이지만, 너무나도 명시적인 인종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데이터는 사용자 경험

에 그대로 반영되어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혁신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 기술만을 선제적으로 탑재하는 자본주의적 사용이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더욱 요청된다. 이러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은 채 도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술 승배는 부와 권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때 아프리카리즘에서의 기술은 ‘억압과 차별’을 위한 수단이 아닌, ‘차별 없는 공동체’를 암시하는 집단적 상상력이다. 이는 II-2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타비아 버틀러의 소설 『킨(KINDRED)』에서 다니는 흑인 디아스포라의 경험으로 얽힌 과거를 추적함으로써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새롭게 도래할 미래를 조명한다. 자넬모네와 바스키아 또한, 서구 시각에서는 일견 미개한 모습으로 재현된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하고 주변인에서 주체자로 당당히 흑인 재현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한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리즘은 흑인 고유의 정체성을 문화에 녹여냄으로써 미래를 상상하면서도 과거의 역사를 탐구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힘이 ‘타자화’가 아닌, 연결 및 유대와 공명한다는 점이다.

III. 결론

인공지능,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등 낱알이 눈부신 혁신을 거듭하는 과학기술 진보의 상황에서, 본 논문은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소수자 집단의 삶을 변화시키는 매개로 이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배제된 아프리카의 역사를 조명하고 기술의 개념을 통해 현대문화의 장에서 서로 조우하도록 하는 아프리카리즘의 개념을 짚어보고 그 사례를 접하며 의의를 고찰했다. 아프리카리즘은 아프리카만의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회 발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는 문화임을 알 수 있었다. 소수성, 타자성이란 이름으로 가려졌던 오랜 디아스포라와 노예제의 트라우마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세상을 향해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으로 그리며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상상한다. 이 미래는 (잃어버린) 시간, 다가올 시간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거는 연대를 의미한다. 요컨대, 본 논문

은 차세대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아프로퓨처리즘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관련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아프로퓨처리즘의 렌즈를 통해 인종적 권력이 재구성되고, 기술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미래를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를 마주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1] T. E. Barber. (2018). 25 years of afrofuturism and black speculative thought: Roundtable with Tiffany E. Barber, Reynaldo Anderson, Mark Dery, and Sheree Renée Thomas. *TOPIA: Canadi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DOI : 10.3138/topia.39.01
- [2] M. Dery. (1994). Black to the Future: Interviews with Samuel R. Delany, Greg Tate, and Tricia Rose. In *Flame wars*. Duke University Press. DOI : 10.1515/9780822396765-010
- [3] Y.S.HA.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America.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America*, 48(3), 117-132. UCI : G704-001280.2009.48.3.008
- [4] J. Lennox. (2022). Young Thug vs. Travis Scott. *Toward Afrodiasporic and Afrofuturist Philosophies of Religion*, 66.
- [5] K. Eshun(2003). Further considerations of Afrofuturism. *CR: The New Centennial Review*, 3(2), 287-302. DOI : 10.1353/ncr.2003.0021
- [6] A. Nelson. (2002). Introduction: future texts. *Social Text*, 20(2), 1-15. DOI : 10.1215/01642472-20-2_71-1.
- [7] Womack, Y. L. (2013). *Afrofuturism: The world of black sci-fi and fantasy culture*. Chicago Review Press. DOI : 10.12801/1947-5403.2013.05.02.08
- [8] A. H.Rushdy. (1993). Families of Orphans: Relation and Disrelation in Octavia Butler's Kindred. *College English*. DOI : 10.2307/378500
- [9] M. Fekadu. (December 15, 2018). The Columbia AP's top albums for 2018. <https://www.columbia.com/news/2018/dec/15/aps-top-albums-for-2018/>
- [10] J. Monae. (April 27, 2018). YOUTUBE. Janelle Monáe - Dirty Computer [Emotion Picture]. <https://youtu.be/jdH2Sy-BINE>
- [11] Z. Rodine. (2022). Janelle Monáe, Dirty Computer, and Embodied Posthumanism. *MELUS*, 47(1). DOI : 10.1093/melus/mlac018
- [12] J. Boyd Acuff. (2020). Afrofuturism: Reimagining art curricula for Black existence. *Art Education*, 73(3), DOI : 10.1080/00043125.2020.1717910
- [13] M. Garcia (2016). Racist in the Machine: The Disturbing Implications of Algorithmic Bias. *World Policy Journal*, 33(4). DOI : 10.1215/07402775-3813015
- [14] P. Jones. (2020). Privacy, transparency and ethical research methods. In *Bodies, Technologies and Methods*. ISBN : 9780429203305